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7)

이 정업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 깨끗케 하는 정결의 능력이 있고, 화목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19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이전에는 지성소는 오직 1년에 1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0:19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 번 용기를 내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다. 그래서 22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간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고자 한다. 또한 내가 지은 죄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빠져갈 구멍을 찾는 자기중심적인 자존심 그것이 바로 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입장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할 인생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알고 인정하며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주세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가운데 들어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뜻이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이미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떳떳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 때문에 당당히, 뻔뻔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믿고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능히 돌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변론해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0:22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구하거나 나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분께만 집중하라! 그분을 뵈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품에 안아주신다는 믿음이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깨끗케 하시고 교제를 회복시켜주시는 믿음이다. 이같은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이같은 복된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닌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며, 더러운 것을 깨끗케 하시며, 화목케 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체험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다!